

# 구례교육청, '구례창의융합교육원 e-ROOM' 개관식 개최

### 구례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면적 1,147㎡의 지상 3층 규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구례교육지원청이 지난 20일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의 중심축이자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구례창의융합교육원(e-ROOM)」 개관식을 가졌다.

구)구례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구례창의융합교육원(e-ROOM)」은 면적 1,147㎡의 지상 3층 규모를 갖추고 있다. 「구례창의융합교육원(e-ROOM)」은 전자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간(electronic)을 가지고, 온마을(학생, 교직원, 지역민) 사람들 모두가(everyone), 언제든

즐거는(everytime), 미래역량 갖춘 배움터(education)로서 구례지역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방(ROOM)의 역할 하게 된다.

1층에는 AI 학습카페, 글로벌 미래교실(구례외국어 체험센터) 등의 교육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2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홀로그램 체험부스, 배움실 등의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VR·AR·홀로그램 체험부스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현실이 되는 미래의 기술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3층에는 영상 창작존과 드론 체험존, 포토존 등을 갖추고 있다.

강수원 교육장은 “「구례창의융합교육원(e-ROOM)」이 지식정보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의 중심 허브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창의융합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교육지원청은 “「구례창의융합교육원(e-ROOM)」을 통해 지역의 초·중학생들이 SW영역(코딩 및 메타버스), 메이커 영역, 창의발명 영역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장성 약속초, 지역주민과 함께 줍킹 행사 실시

지난 20일에 장성군 북하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약속초등학교와 북하면, 장성군, 약속초 동문회,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50여명이 자연과 생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언'과 '줍킹'행사로 진행되었다.

'줍킹'은 쓰레기 줍기와 트레킹의 합성어로 탄소중립 실천의 시대에 잘 어울리는 말이다. '줍킹'행사는 지난 9일 약속초등학교에서 열린 지역교육공동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천으로 옮긴 첫 순간이었다. 이날 행사는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러 기관 및 주민들이 모여 선포식으로 시작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탄소중립 실천의 내용이 적힌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약속초 6학년 장현우 학생은 이날 모인 사람들을 대표로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선언문 낭독 이후에 학생 및 참석자들은 손에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본격적인 '줍킹' 실천을 했다. 북하면 일대를 한 시간 정도 돌며

쓰레기도 줍고 마을 길도 트레킹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즐겁게 자연과 마을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6학년 장현우 학생은 “모인 사람들을 대표로 탄소중립 실천 선언을 하는 순간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왠지 가슴이 뿌듯했다.”며 “선서문에 적힌대로 앞으로 생활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승자 교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줍킹이라는 행사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 지역민과 함께 참여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우리 학교가 탄소중립 선도학교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 학부모, 지역민, 자치단체 등이 참석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장성=김수권기자

## 목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위한 합동 교외생활지도 실시

### 관내 초·중학교 및 목포경찰서와 연계 진행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목포 관내 초·중학교 및 목포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 교외생활지도 실시하였다.

이번 교외생활지도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탈선 및 유해 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활지도 참가자들은 2개조로 편성되어 '작은 관심은 커다란 힘'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지도 및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선도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목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청소년 유해 업소 및 취약지역의 순찰과 계도를 동시에 진행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생 비행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였다.

정대성 교육장은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기적인 교외생활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키고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광양중진초, 매일 아침 글쓰기 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광양중진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이어지는 전교생 대상 매일 아침 글쓰기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와 형

### '책 읽는 마을 글 쓰는 동네' 공책 직접 제작해 학부모의 높은 호응 얻어

식의 글쓰기 활동으로 올바른 글쓰기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 독서교육도 겸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집중력과 창의성 그리고 감정과 정서를 기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양중진초는 '책 읽는 마을 글 쓰는 동네' 공책을 직접 제작하여 인성교육, 비만예방, 생명존중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을 지도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4년째 글쓰기 주제와 영상 선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장 임미현은 “글쓰기 교육이 중요

한 이유는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집중력도 높이지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사려깊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며 “미래교육의 중심은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고, 학생들이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적·융합적 사고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중진초는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만학생 관리를 위해 3년째 「건강체중 도전! 비탈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 및 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배우 차인표의 비탈길 응원영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